운명 (요한복음 5:1-18)

오늘은 하나님이 중요한 제목을 주셨다. 운명이다.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를때에는 이런 단어를 잘 인정을 하지 않았다. 주로 무당들이나 쓰는 단어였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 이것이 무당이 쓸 단어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단어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결론은 그리스도 만나면 운명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인간의 운명이 해결된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계속 해결이 된다. 인생에서는 아예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져버린다. 오히려 그 운명이 다음 인생의 바탕이 된다. 사람 살리는 전도의 컨텐츠가 된다.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는 것은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보면 첫째는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피조물이라는 말이다. 그 다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보는 눈에 따라서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인간에게서는 뺄수 없는 근본 조건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단 한 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리고 끝까지 창조 원리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해도 된다. 대신 죽어야 한다. 죽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무슨 큰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굉장히 큰 상을 주신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넣어주셨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은 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딱 넣어주셨다는 것이다.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인간의 중심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중심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며 살면 인간에게는 큰 갈등 없다. 오히려 응답 받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수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벨탑을 쌓는다. 문제는 그것을 그것을 그렇게 의미있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것이다. 해봐야 결국 무너지고 아무 의미 없는데 계속 쌓는 것이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하다 실패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또 한다. 사실 영적 문제이다. 천지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쓸데 없는 짓을 계속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하면 안된다. 제일 바보같은 짓이다.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이 없어진다. 자꾸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 완전 순종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냥 영적 생활이 아니라 완전 영적 생활 되기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게 된다.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으로부터 달라져야 한다.

1. 운명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리스도면 운명 해결된다이다. 38년된 병자 이야기이다. 병이 38년 되었으면,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오래되었다는 것이 표시난다. 그리고 가망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과 같이 말씀 한마디에 해결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 병자라고 생각해보라. 놀라운 일이다.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했는데 나았다면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몇가지 정리하고 적용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다. 오늘은 그것을 보겠다.

첫째가,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병자는 병이라는 것에 잡혀서 꼼짝을 못한다. 어쩔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이 병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아무리 해도 길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다. 애를 쓰고, 힘을 다하고 해도 절대 길이 없다. 그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병자는 혹시나 하고 기다렸을수도 있다. 혹시 연못에 움직일 때 자기에게 기회가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을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양보를 하나? 이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움직일 때 누가 양보를 하나, 다 자기가 병낫기를 바라지. 그래도 다른 길이 없으니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나 끝까지 안되는 것이다. 그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일은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까 역시나 아닌 것이다. 세월은 다 지나가버렸다. 참 환장할 일이다.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에도 답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안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되는 이 일에도 답이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애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해방된다.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완전 역전 일어난 것이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말씀. 잘 생각해야 한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다. 그리스도, 그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이다. "내가 너의 운명의 근본, 원죄를 해결하러 왔어.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너에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왔어. 나는 그리스도야. 누가봐도 너는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 38년이나 되잖아? 내게는 답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이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인생 역전의 길이다. 여기에 답 나야 한다. 자꾸 지나가면 안되고 멈춰서서 답으로 잡아야 한다. 렘넌트들이나 젊은이들 미래를 어떻게 살것인가? 그것에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38년 되었으면 이제는 끝났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도 거기에도 답이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운명은 가만히 두면 운명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버리면 발판으로 바뀌어버린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증인된다.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의 컨텐츠가 된다. 나는 여기였는데 역전되어버렸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다. 근본 운명, 원죄로부터 온 문제 누구나 다 있다. 누구나 하나쯤은 내 평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보고 우리가 전에는 영적문제라는 단어를 썼다. 나는 인생이 무엇에 걸려서 항상 넘어지는가? 그런게 있을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증인된다. 나는 이것이 해결될 것을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결국 그것이 무너졌다. 그리스도.

또 하나의 원리가 11-12절에 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누가 너를 고쳐줬냐고 하니 모른다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는 대부분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깊이 알면 더 좋다. 누리고. 그 깊은 세계를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러나 몰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누군지 모르는 것이다. 병은 나았는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내 노력 아닌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내 믿음도 아니다. 내가 몰라도 역사 일어난다. 믿음 없어도 구원 받는다. 꼭 믿어야 구원 받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상하다고 말할수도 있다. 더 근본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동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죽기 1초전에 구원 받는 사람이 있겠나 없겠나? 믿음 확인도 할수 없다. 물론 1초 사이에도 믿음 주셔서 구원하실수 있다. 믿음마져도 은혜의 결과인 것이다.

14절에 보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몰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나 있는 일이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다.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지명을 받은 것이다. 이사야 43:1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다.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름을 받으면 꼼짝못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도망쳐도 안된다.

영적 일이라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참고해야 할 영적 원리는 1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 하기를 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죄 없으면 저주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는 왜 왔냐면 원죄 때문에 왔다. 죄 없으면 사단의 역사 없다. 그 때도 우리가 원죄보다도 사단이 더 근본 이유라는 것은 원죄 이전에도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사단이 더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인간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그 죄가 언약을 깨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사단이 맘대로 역사할수 있으니 자기 운동장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만일 내가 100퍼센트 죄를 끊을수 있다면 사단이 역사할 장이 없어진다. 그게 안되기에 우리가 언약잡아야 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사단의 역사가 없다. 사단은 항상 죄를 따라 역사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의 무슨 죄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양심에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원리는 똑같다. 우리는 이 죄를 이길수 있어야 한다. 그 답이 그리스도이다. 죄를 안 지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나 오늘도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많이 하거나, 주일날 예배와서 지난주에도 이런죄 저런죄 많이 지었다고 회개를 한다면 나쁜건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이길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죄를 정복하는 것이다. 차츰 차츰 계속 정복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100% 정복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안될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꾸만 운명이 되게 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지속되게 하는 결정적인 죄는 밟아야 한다. 우리가 적어도 그정도는 밟아야 승리했다 말할수 있다. 모든 죄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죄를 정복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할수 있다는 증거로 38년된 병자에게 역사하셨다. 너는 안되는 인생이다. 그 말이다. 그러나 답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누구나 운명에 잡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지옥가는 일없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쳐서 엉망되는 일 없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이것에 계속 진다면 그것은 밟아야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운명이라는 그 말이다. 예를 들면 죽음, 누가 해결할 것인가? 절대 안된다. 아무도 못한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계속 문제가 오는데 이걸 누가 끊을수 있나?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했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문제가 계속와도 끊을수 있고 역전시킬수 있다. 사단이 환장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통치 않아도 되어도 해방된다. 사단은 이 사람을 38년간 잡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방되어 버리니 사단이 환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다.

운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메시지이다. 늘 듣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서 꽂혀야 한다. 운명은 그리스도로 해결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해결한다. 근본은 그의 은혜이다. 이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운명은 결국은 해결된다. 은혜니까. 그러나 손해를 많이 본다. 이것을 정복하고 짓밟고 누려야 하는데 매일 끌려 다니면, 그래도 지옥은 안가지만 매일 당하면 되겠는가? 일어나는 문제마다 원인은 그것이다. 죽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만 발동하면 병이 나고 몸이 아프다면, 그것만 발동하면 부부끼리 싸움을 하면, 그것이 발동해서 중요한 사업파트너랑 싸워서 뒤집어 진다면, 이것이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면, 적어도 이것은 박살내야 되지 않겠는가?

2. 살리는 자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운명에서 건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한 일이다. 무심코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을 운명과 저주에서 건지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운명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 데려오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아주 엄청난 사람이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다. 말씀을 전달하면 된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는데 38년된 병자가 살아났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다.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지옥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울며 불며 따라간다. 안 갈려고 발악을 해도 귀신이 찾아와서 맞아가면서 끌려간다. 그래서 성경이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이다. 너무나 슬픈데 문제는 회개는 안하고 이를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될줄 알지만 절대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미 늦었다고 했다. 이것이 운명이다. 여기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말씀운동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영원히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

딤후 4: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다. 사도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 하기 전에 딤후 4장 1절에는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엄청난 것을 배경으로 하고 너는 이 일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도는 말씀운동이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전했다. 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해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 말씀을 바로 전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받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렘넌트 7명 뿐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된다. 나는 늘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도 말씀을 주세요라고 오늘부터 기도하면 된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이 다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그 날부터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 받고 고향을 떠났다. 모세는 80세 때 이 말씀을 받고 그 때부터 진짜 인생을 시작했다. 다니엘은 말씀 받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말씀받고 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리는 자가 된다. 살리는 자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나는 방법도 이것이다. 그런데 왜 나는 안되냐? 과정이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있고 이주의 말씀이 있고 올해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은 내 평생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평생의 말씀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 이주간의 말씀, 올해의 말씀을 누려야 한다. 내가 받은 말씀을 근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주간은 38년된, 혹 우리에게도 있을수 있는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받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만일 강단에서 말씀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만일 오늘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게 되어 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힘이다. 그리고 바로 기도해야 한다. 만일 평생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대로 되어진다. 당연히 그것은 내 평생의 기도제목이 되어진다. 항상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받게 되어 있다. 내 평생의 말씀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게 들리는 모든 말씀은 그렇게 들려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며 끝이다. 성취 안되고 응답 안나타나도 벌써 정복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미리 보이게 되어 있고 응답받게 되어 있다. 아직 안왔는데 이미 정복하게 되어 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주시기 바란다. 이 놀라운 역전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